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 경제전망 상향조정과 배경

- 연방준비위원회는 2011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.3~0.4%p 상향 조정하였으며, 이에 앞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성장을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남.
 - 연방준비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경제전망에서 2011년 미국 실질 GDP가 3.4~3.9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이는 2010년 11월 전망치 3.0~3.6%보다 0.3~0.4%p 상승한 수치임.
 - 이에 앞서 실시된 월스트리트저널의 서베이에서 이코노미스트들 또한 2011년 경제성장을 전망을 3.2%에서 3.6%로 상향조정 함.
 -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5년 3.1%를 기록한 이후 3%를 하회해 왔으며, 2010년에는 2.9%를 나타냄.
 - 그러나 연방준비위원회와 이코노미스트들 모두 실업률에 대해서는 각각 8.8%, 8.6%로 전망하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으며, 높은 주택차압률, 물가상승, 정부 재정악화, 유럽 금융시장 불안 등을 위협요인으로 지적함.
- 경제성장을 전망치 상향조정 움직임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지출 증가세가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, 신용카드 사용액, 소비자지수 등의 지표들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음.
 - 2010년 4/4분기 내구재소비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연율 환산 21.6% 증가하였으며, 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경우 실직 우려 감소로 금융위기 동안 미루어왔던 소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.
 - 2010년 12월 미국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3억 달러 증가하였으며, 로이터와 미시건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2월 75.1을 기록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냄.
 - 한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1월 60.6을 나타내면서 8개월 만에 60선을 회복한 바 있음.

(LA Times 등, 2/16)